

제41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

2016. 3

1. 개 요

□ 목 적

- 한미약품 성공 사례 공유 및 대한민국 신약개발 산업 전망에 관한 논의 및 토론

□ 일 시 : 2016년 3월 16일(수) 10:00~12:00

□ 장 소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

□ 주 제 : 「한미약품 성공 사례와 대한민국 신약개발의 미래」

□ 프로그램

시간	내용	비고
10:00~10:10	발표자 소개	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10:10~10:50 (40분)	주제 발표	권세창 한미약품 부사장 겸 연구소장
10:50~11:30 (40분)	패널 소개 및 지정 토론	(좌장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(패널) 권영근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 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
11:30~12:00 (30분)	자유 토론	참석자 전원
12:00	폐회	(사회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
2. 주제 발표 주요 내용

□ 발표 주제 : 한미약품 성공 사례와 대한민국 신약개발의 미래

- 2002년 글로벌 Top 20 회사 중 대부분이 벌써 사라졌을 정도로 변화와 성장이 빠른 분야가 제약 분야
- 글로벌 기업에 비해 R&D 비중이 절대적으로 열세
- 잘 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분야, 판을 벌일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야 함
- 글로벌 기업에 비해 R&D 비중이 절대적으로 열세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은 연구비와 매출액, 연구원의 수 모두 1/10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하는 곳에 집중함으로써 판을 바꾸는 '게임 체인저'가 되지 않으면 승산이 없음
-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만성질환 치료제, 난치성 치료제, 희귀의약품, 바이오 시뮬러, 차세대 백신 등 글로벌 신약개발 트렌드에 대응하는 선택과 집중화 전략이 필요
- 개별 제품 개발보다는 강력한 '제품 포트폴리오'를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, 원천 플랫폼 기반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며 가치 창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등이 필요
-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중소기업, 출연(연)과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투자현황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약 산업의 특수성에 입각한 단계별 R&D 투자 지원, 중장기 투자 확대는 물론 제약 산업 분야의 자발적 R&D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

3. 패널토론 주요 내용

【 권영근 연세대 교수 】

- 리스크를 감수하며 꾸준한 R&D를 통해 현재의 한미약품의 성과 창출이 가능
- 지속적으로 성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필요
- 타 산업 분야의 침체를 제약 산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
- 현장에서 필요한 니즈(정부정책, 인허가, 대학·연구소 역할 등)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
- 제약산업 자생력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투자 이루어져야함(글로벌 기업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유도)

【 최수진 KEIT 바이오 PD 】

- 바이오분야의 특성상 장기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
- 1950년 후반 제약사가 만들어진 이후 60년 이상 버텨온 대기업들과 2000년대 초반 생긴 약 1,500개의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 4위(1위 미국, 2위 EU, 3위 일본)
- 지속적으로 투자 이루어져왔고, 완성도 단계에 있음. 향후 미래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
- 최근의 바이오업계 요구사항은 R&D지원 확대 보다는 인프라 구축(조세제도, 규제완화 등)
- 바이오산업 촉진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지속적 노력 필요

【 김은정 KISTEP 생명기초사업실장 】

- 신약개발 R&D투자현황 분석에 따르면, 바이오투자 중 30%가 기업에 투자되고있음
- 과거에는 기업에 비임상 이후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, 최근에는 최적화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
- 정부에서 1994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(예산 약 500억)으로 본격 투자가 이루어짐. 2016년 기준 2조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. 2000년 초반 연평균 20%정도로 바이오분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짐.
- 정부 투자 20여년 만에 한미약품과 같은 성과를 봄(장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
- 부처별 수행주체별 경쟁적으로 사업 하다보니 유사중복, 쓸림의 문제점 대두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과위, 국과심 등에서 부처간 역할분담, 유사중복 해결하고자 노력
- 신약개발을 성과의 단절 없이 모든 부처에서 협력해서 지원해야 하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만들었고, 유사중복 이슈도 조정되고 있음
- 기존의 성과들이 경제적 성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, 바이오분야 R&D정책과 산업정책 함께 이루어져야함
-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
- 바이오분야 전주기 지원이 아닌, 응용과 개발은 민간으로 넘기고, 정부는 앞으로 신약으로 시드(초기단계의 기초기술)에 초점을 맞춰야함